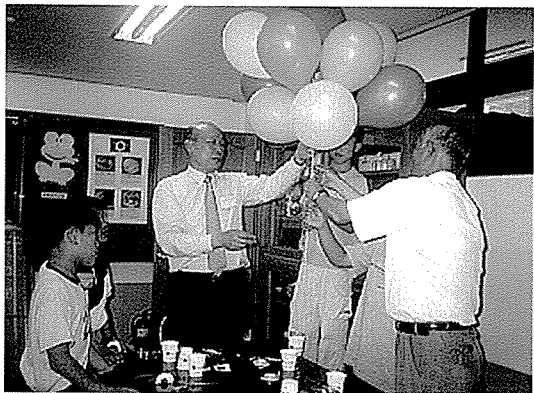


‘과학교실 - 범국민운동’ 을 꿈꾼다

글_손욱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삼성종합기술원 봉사팀인 반딧불이팀원들이 결연학교인 제일초등학교 과학반 학생들을 찾아가 헬륨을 이용한 실험(헬륨기구 만들기)을 하고 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과학기술력이 경쟁력의 관건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과학기술강국이 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2061』을 통해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장차 과학기술분야의 리더가 될 만한 창의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과학 교육을 실험, 관찰, 체험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과학에 흥미를 잃는다고 한다. 또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과학 공부를 즐기거나 과학 관련 직업에 흥미를 갖는 학생의 비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한다. 이는 장차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이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에, 이런 전망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과학기술력도 결국은 인재에게 달려있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시대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흥미와 과학적 사고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얼마 전, 한양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전국의 초·중·고교를 찾아 다니며 이동과학교실을 열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과 인재 양성의 작은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도 지난 해부터 초등학교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시간을 내어 초등학교를 방문,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함께 실습시간을 가지며 실험을 지도해 주는 활동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용인 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과학교실을 운영한 결과, 아이들로부터 “과학교실 참가 후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등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에 고무되어 올해는 용인지역 17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등학교 과학교실 활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어린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전국적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교실 지도, 과학실습 조교 지원 등을 통해 과학 영재의 씨앗을 키우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과학기술 기반 조성이라는 국가의 과업은 이러한 작은 활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삼성전관 대표이사 역임. 현 한국공학한림원 최고경영인 평의회 운영위원장